

농어촌지역 문화·복지시설 설치규모 및 효율적 운영방안

윤상현*, 김진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부지역본부

e-mail:ysh0039@ekr.or.kr

A Plan on the Installation Scal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ultural·Welfare Facilities in Rural Area

Sang-Hun Yun*, Jin-Hwan Kim**

*Rural Research Institute, KRC(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Chungbuk Regional Headquarter, KRC(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요약

본 논문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문화·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규모 기준 마련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문화·복지시설 중 운영·관리상 부진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운영 부진 원인은 주민·방문객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과도·과소 규모의 건립 등 건축계획 및 설계의 부적절, 운영관리 지원시스템 미비 등에 있다. 특히, 건축계획 및 설계 측면에서 과도·과소 규모의 시설 건립은 운영·관리 비효율성이 증대되며, 주민 이용불편 등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운영 부진 방지를 위한 시설별 설치규모 기준이 부재하고 운영 관리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복지시설의 운영 부진 최소화를 위한 설치규모 기준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활용성 극대화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우선 설치규모 및 기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 문화·복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 분석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대상지로서 총 59개소(사용승인 후 2년 경과 마을회관 : 16개소, 다목적회관 : 43개소)를 선정하였다. 조사는 H/W·S/W 운영실태 심층 분석, 규모 및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사례별 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분

석하였다. 설치규모 기준 도출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에 의한 이용인구 및 수요,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유형별(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규모기준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규모산정 방식(회귀분석 및 원단위 이용)을 준용하였으며,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이용수요 및 결과를 반영하였다.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토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문화·복지시설 설치 현황

현황분석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지구 총 435개(기초생활기반확충 부문 236개) 시설물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건립 유형은 다목적회관 77개소(32.6%), 마을회관 4개소(20.8%), 복합문화센터 36개소(15.3%)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건립 규모는 다목적회관은 평균 529.4㎡, 마을회관은 174.7㎡, 복합문화센터는 914.6㎡로 나타났다.

3.2 운영실태 조사 결과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건축유형, 건축형태 및 구조, 운영형태, 운영주체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마을회관은 단일기능의 단일형(50.0%)과 기능이

복합되어 이용되어지는 복합형(50.0%)이 절반씩 나타났다. 다목적회관은 공간구성에 있어 비수익형(58.1%), 수익형+비수익형(25.6%), 수익형(16.3%) 순으로 조사되었다(수익형이 포함된 경우는 41.9%). 수익형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운영관리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만 전반적으로 운영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3.3 문화·복지시설 건립 문제점

현황분석과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종합한 시설건립 문제점으로는 첫째, 문화·복지시설의 수익형 기능을 포함하도록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 둘째, 시설 복합화 미흡으로 마을회관의 경로당화 심화, 다목적회관은 운영관리 어려움 발생. 셋째, 운영관리 프로그램 및 비용지원 미흡. 넷째, 시설물 규모 기준 부재로 과대·과소 건립에 따른 비효율 초래. 다섯째, 시설물 건축계획 수립 부적절. 여섯째, 준공 이후 사후관리시스템 미비. 일곱째, 시설 노후화 및 고령자를 고려한 배려(BF, 유니버설디자인 등)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3.4 문화·복지시설 규모기준 도출

원단위 기준에 의한 산정방식과 회귀식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규모기준을 도출·제시하였다.

3.4.1 원단위 기준에 의한 규모산정

시설규모 = 연간 총 이용객 수 × 계획일 집중률 × 동시 체재율 × 원단위
1) 연간 총 이용객 수 : 이용객 수 × 251일 × 보정계수(1±10년간 인구증감률)
2) 계획일 집중률 : 4계절형(0.01) 적용 (실태조사 결과 값 반영)
3) 동시체재율 : 2시간형(0.31), 3시간형(0.47) 적용 (실태조사 결과 값 반영)
4) 원단위 : 마을회관(9m ² /인), 다목적회관(15m ² /인)

3.4.2 원단위 산정 : 사업 추진지구의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연면적 기준 산정

구분	원단위(m ² /인)		연면적 평균(m ²)
	단일 값	범위 값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9	171.09
		5-14	
	다목적회관	15	563.47
		10-25	

3.4.3 회귀식에 의한 규모산정

회귀식	$Y = 0.130X_1 + 4.615X_2 + 0.019X_3 - 1.205X_4$
독립변수	X_1 : 이용인구 (권역 인구수, 읍면소재지 인구수) X_2 : 성비 (여성100명당 남성의 수) X_3 : 연령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100) X_4 : 지역유형 (농가 비율 (농가 수/전체 가구)*100)

3.5 운영 활성화 방안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H/W 측면의 개선방향, S/W측면의 운영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3.5.1 H/W측면 개선방향

H/W 측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기능 복합시설 건립(스마트+고기능(저에너지)+공간효율 극대화). 둘째, 유지관리와 지속성을 담아내는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 셋째, 다기능 시설복합화를 위한 관련부처 및 주체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넷째, 활용되지 않는 유휴시설의 복합커뮤니티센터로의 재구조화(리모델링), 다섯째,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분리 설치 및 다기능 부여로 전 세대 공유 필요. 여섯째, 문화·복지시설 건축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한 요소별 설계안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3.5.2 S/W측면 운영활성화 방안

S/W측면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시설물 운영활성화 요인을 운영주체, 운영프로그램, 운영관리의 3요소로 구분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각 대상지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현황과 실태조사를 하고, 마을회관과 다목적회관의 설치규모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내용은 문화·복지시설의 활용성 극대화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강현모,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체시설의 기능별 면적산정 모델개발”, 2020년,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경상북도 농촌개발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시설 규모 결정기준”, 2018년.
- [3] 농림축산식품부, “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권역 하드웨어 구축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2012년.
- [4] 선영선 외, “농촌마을 커뮤니티시설의 적정 면적 산정에 관한 연구”, 2010년, 한국조경학회지.
- [5] 최영완 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6년,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2(2).
- [6]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현황카드”, 2019년, 2020년, 내부자료.